

産 · 學 · 研

협동연구체제구축

韓國電氣연구소



吳昌錫 所長

1986년은 한국전기연구소(KE-RI)가 새로 발족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업년도로서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韓國전기연구소는 86년 7월 한국전기통신연구소에서 전기부문이 분리돼 설립된 후 6개월간 독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전력사업과 전기공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및 경제성에 관한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고히 갖추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정부가 입안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의 기본방향에 초점을 맞춰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른

전기기의 국산화 촉진에 있어서 공통으로 기술인 점접, 消弧장치, 진공기술, 아크 플라스마(arc plasma) 기술, 세라믹 컨덴서 등에 관련된 전기재료부문의 기술과, 전력용 반도체소자와 마이크로 프

아울러 고급 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두뇌 10여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電氣器機의 國産化기술개발에 역점

로세서를 이용한 전력변환, 공정의 자동화 및 제어를 행하는 전력전자 부문의 기술을 개발, 기업에 전수시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에너지절약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전자기술을 이용한 에너지절약형 전기기기를 개발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구개발사업외에 새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기술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위해 주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유망기업을 발굴하던 종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 전기공업협동조합, 전선공업협동조합, 조형공업협동조합, 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력 기종별로 업체를 분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망기업은 아니더라도 기술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지도를 실시, 유망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또 전기자재 시험사업에 있어서 불합격 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기술지도를 강화, 전기기자재 제조업체들의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불합격률을 낮춰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과제책임자 중심의 연구관리체제 강화”

연구 개발사업 방향은 ▲단기간에 세계 첨단수준에 도달 가능한 부문으로서 중전기분야 기술의 고도화와 자동화, ▲중기적으로 성공가능성이 크고 필수적인 기술 부문으로서 전기재료의 신소재개발, 에너지변환기술, 전력수송기술 ▲전력사업과 관련된 전자계, 대기, 수리 환경의 보전등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중

이같은 연구개발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인력과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연구는 과제책임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전권을 위임하되 관리를 철저히 하는등 연구관리체제를 강화하며, 학계·업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과제를 결정 수행토록 산·학·연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